

FoMo



Vol.34
www.fomo.or.kr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rced Mobilization

2025
상반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10주년

광복80주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Content

FoMo	새롭게 탄생한 FoMo	03
특집	광복 80주년 기념! 2025년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 안치식 - 유족과 역사의 아픔을 새기다	04
재단소식	2025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 위패 봉안 신청	08
	미래세대위원회 2025년 제1차 간담회 - 기억을 잇는 미래세대의 첫걸음	09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 광복 80주년,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의 회고, 현안, 전망	10
	강제동원 희생자의 길을 걷다	12
	야하타 제철소와 지쿠호 탄전, 일제강제동원이 남긴 아픈 역사의 기록	14
역사관	함께하는 작은 기적, 당신의 손길이 희망이 됩니다	19
	산뜻하게 다시 태어난 역사관으로 전시관람 오세요	20
	특별전시	21
참여와 소통	당신의 한 걸음이 지구를 바꿔요~ 포모플로깅	22
	찾아가는 즐거움, 어디든 내가 찾아간다! FoMo Bus	24
	4월 23일은 무슨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25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나만의 군인동원 전시실' 교구 증정	25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in 역사관	26
	제106주년 3.1절 기념 행사 -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다	28
	6월항쟁 체험 부스 - 민주주의, 거리에서 피어나다	29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기(국립대학교 전·현직 총장협의회)	30
	홍영숙 회장, 귀중한 자료 5,537점 기증	31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 유물기증으로 그 흔적을 잇다	31
News	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목소리 포모기자단!	32
	② 전시해설사 이야기	
	- 2025년 새로운 전시해설사의 시작부터 활동까지 전시해설사의 여정	34
	- 전시의 이야기꾼, 전시해설사들의 속마음을 엿보다	35
교육·문화	WEBTOON - 옛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겪었던 슬픈 이야기	40
	오키나와 전쟁터에 끌려 간 태오	4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안내	42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5 하반기 사업안내	43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통권 제34호

발행인 심규선 **편집인** 박민석

편집위원 강창석, 배연우, 배가령, 류승자, 하태현, 반선영 **기획·편집** 조동환

디자인 디자인크레파스 주윤경

홈페이지 <https://www.fomo.or.kr/museum>

FoMo

Vol.34

www.fomo.or.kr

2025

상반기



우리 역사관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친환경 용지와 공기름 잉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FoMo

Forced Mobilization

그리고 보니 내 이름을 아는 사람?



기본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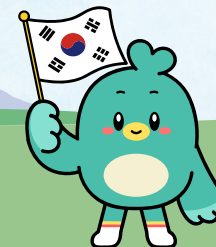
날아가는 모습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모습



국화를 들고 있는 모습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

나는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 포모라고 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마스코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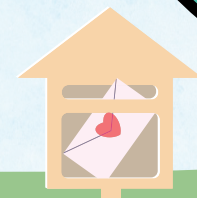
우리 재단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파하여

세계평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내 이름은
포모(FoMo)야!!
기억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비둘기





故 이인우님, 故 한기팔님 위패

고향 80 주년 기념! 2025년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 안치식 유족과 역사의 아픔을 새기다

피해지원국 유족·연구팀 _ 김영기 행정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남구 소재) 5층 ‘기억의 터’(위패관)에서 「2025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위패 안치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족들과 함께하는 추모와 위로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제강제동원 유족과 관계부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추모 공연(살풀이) 및 위패 안치, 추모사 등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안치식



2025년 상반기 신규 위패 29위 안치

재단은 매년 유족의 신청을 받아 새로운 위패를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9위를 새롭게 위패관에 안치하였다. 이를 통해 위패관은 현재 총 1,787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유족의 뜻을 반영한 예우를 다하고자 위패의 보존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정성과 품격을 담아 좋은 평가를 받은 안치식

이날 안치식은 다음 순서로 진행했다.

- 추모공연 - 살풀이
- 위패 안치 - 유족 한원황, 이종희
- 추모사 - 유족 대표 정복영,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장동수, 재단 이사장 심규선

정복영 유족 대표는 추모사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조명되기를 바라고, 수많은 유족들의 아픔과 한을 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또한, 한원황 유족 대표가 신규로 만든 위패를 직접 벽면에 안치시키는 절차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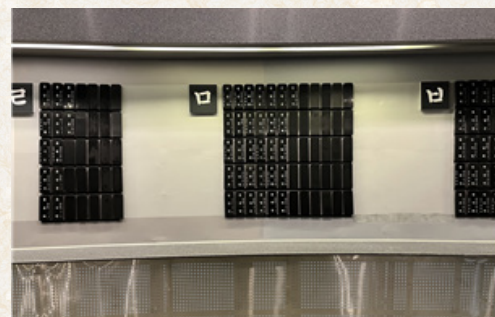
정복영 유족 대표의 추모사



위패를 어루만지고 있는 유족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패관 기억의 터 전경



가나다순으로 재배치한 위패

가나다순 위패 재배치, 친절한 추모 환경 조성

2025년 위패 안치식을 앞두고, 재단은 전체 위패를 전수 조사하고 명단을 정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패 총 1,787위에 대한 전면 재배치를 완료하였다. 가나다순의 위패 재배치로 유족의 편의와 위패관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위패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부터 8까지 '표시식'을 부착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위패를 손쉽게 확인하고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故 위패를 어루만지고 있는 김재봉 유족 ▶



기억은 모이는 것이고, 추모는 이어가는 일

기억의 터에는 매년 더해지는 위패들이 줄지어 부착돼 있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고통의 역사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공유하는 수많은 얼굴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분들의 삶은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오늘의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안치식의 의미는 단순한 위로로 넘어선다. 그것은 마음 깊은 심연에 스며든 영원한 회한과 슬픔, 그리고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불현듯 모습을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편린들을 마주하는 일이다. 이 마주함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아픔과 기억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삶이 온전해짐을 깨닫는 깊은 성찰이다. 또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음이 아닌, 그 무게를 온전히 품어 안으며 기억의 의미를 새기는 일이다.



이번 안치식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억을 모아 진실을 지키고, 추모를 이어가려는 오늘의 다짐이었다. 유족과 함께한 이 시간은 재단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귀중한 계기였다. 재단은 앞으로도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아픔 치유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 위패 봉안 신청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령과 추모 등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유골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국외 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의 넋을 기리고자 2020년부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위패관 ‘기억의 터’에 위패 봉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위패관)’ 위패 안치를 희망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와 연고가 있는 분은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여 위패 봉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억의 터(위패관)’ 위패 봉안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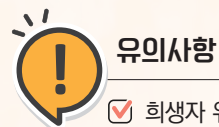
신청대상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현지 사망 및 행방불명)와 연고가 있는 유족, 유족회장 등

신청기한 ▶ 2025년 연내 상시 접수

신청서류 ▶ 가. 2025년도 위패제작 신청서 1부(신청서류 홈페이지 참고)
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신청서류 홈페이지 참고)
다. 위패 이전 안치 동의서 1부(망향의 동산에 안치 되어 있는 경우)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위 안치 경우)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FAX 접수 가능
※ 보내실 곳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6층)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앞

문의사항 ▶ 피해지원국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 02-721-1851, FAX 02-721-1883)



유의사항

- ☑ 희생자 위패 추가 제작 시, 배우자 위패 제작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 ☑ 위패 봉안 대상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지급 대상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만 해당



4월 26일 토요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위원회(2기)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도부터 재단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세대위원회는 강제동원 논의 주체 및 외연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위원회(2기)는 올해 3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1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포스트 생존자 시대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유족공동체를 목적으로 출발한 미래세대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 3·4세대 간 교류 및 강제동원 역사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2기 위원 위촉 및 강제동원 현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뒤이어 광복 직

후 귀국 과정에서 발생한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에 대해 재단 우키시마호명부분석팀 서인원 팀장의 강의를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강연 및 강제동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유족 간 네트워크를 다지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이호열, 정민준 위원과 김세원 위원은

강제동원 희생자분의 증손자녀로 재단 추진사업인 ‘2025년 국외 추도순례’(7월)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강제동원 미래세대인 신규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미래세대위원회 2025년 제1차 간담회

기억을 잇는 미래세대의 첫걸음



미래세대위원회 이호열 위원 위촉



미래세대위원회 정민준 위원 위촉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광복 80주년,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의 회고, 현안, 전망

피해지원국 유족·연구팀 _ 김진자 실무관

재단은 지난 6월 10일 화요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 80년 :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의 회고, 현안, 전망’을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 이후의 일제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연구와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크게 ‘기조강연’과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고, 세션별로 각각 두 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두었다. 먼저 이번 심포지엄을 축하하며 강제동원 피해 유족인 김봉시 재단 특별위원이 일본에 있던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온 과정을 전하면서 유족의 아픔과 소망을 이야기했으며, 한일의원연맹회장이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회의원이 ‘새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한 전망과 기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갔다. 심포지엄은 ▲제1세션, 광복 이후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2세션, 오늘의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제3세션, 바람직한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등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 80년을 점검할 수 있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봉시 재단 특별위원 축사



심규선 재단 이사장 개회사



기조강연 중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1세션 : 회 고

‘아시아태평양전쟁 피해 관련 연구, 성과와 과제’(정혜경), ‘광복 이후 강제동원 활동, 성과와 한계’(남상구)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도쿄대학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교수와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그간의 국내외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 상황을 돌아봤다.



2세션 : 현 안

‘강제동원 연구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송규진), ‘강제동원 활동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합의’(최봉태)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소속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씨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한혜인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3세션 : 전 망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 방향’(이원덕), ‘강제동원 유족활동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심규선)에 대해 발표한 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전 도쿄대학 교수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허광무 소장이 한일관계와 유족 활동에 무게를 두고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의 방향성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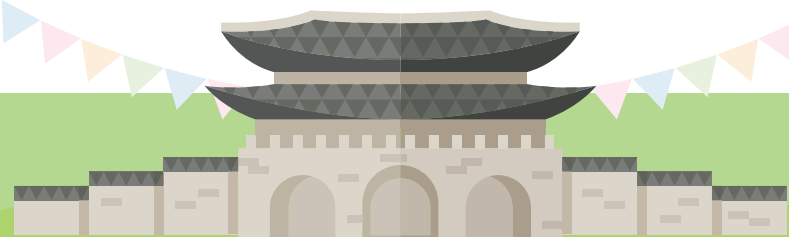


광복8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제동원 관련 연구자 및 관계자 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와 유족,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참여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며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다. 재단은 앞으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는 한편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에 일조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어울림 행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앞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서울 종로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강제동원 희생자의 길을 걷다'를 진행하였다

광복 80주년 기념 강제동원 희생자의 길을 걷다



역사유적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크게 강제동원 관련 유적지 스탬프 걷기 투어, 체험부스,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유적지 스탬프 걷기 투어는 광화문 일대의 강제동원 유적지를 직접 걸으며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출발하여 경희궁 방공호~프란치스코회관 소녀상~유관순열사의 배움터 이화박물관~을사조약을 맺은 덕수궁 중명전을 거쳐 다시 행사장으로 복귀하는 코스(4.5km)로 진행하였다. 약 1,000명 정도의 유족 및 일반시민들이 참석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 유족을 위로하는 공감과 합의 자리를 만들었다.



또 일반 시민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하였다. 재단 및 역사관 홍보관, 포모네켓, 태극기&무궁화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부스, 포모 에코백 만들기, 타투 스티커 체험, 롤레이벤트, 전통 놀이(투호, 제기차기 등) 부스, 희망나무 소원 매달기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강제동원 OX 퀴즈 대회, 포토존, 유족 휴식공간도 운영하였다.



무대프로그램으로는 국악비보이&퓨전국악 콜라보 무대, 팬텀싱어 이동신 크루 팝페라 공연, 마술쇼 등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였으며, '일제 강제동원 OX퀴즈'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역사적 사실 등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알아가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다.



< 오늘 어떠셨나요? >

스탬프 걷기투어를 하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강제동원 관련 역사유적을 알게되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이런 의미있고 즐거운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하게된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뜻깊은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채록

야하타 제철소와 지쿠호 탄전, 일제강제동원이 남긴 아픈 역사의 기록

피해지원국 유족·연구팀 _ 이정호

간몬 해협을 사이에 두고 시모노세키와 마주 보고 있는, 일본 규슈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기타큐슈 시. 규슈 제1의 도시인 후쿠오카와도 가깝기에 한국의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이 도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처럼 원자폭탄이 떨어졌을지도 모를 도시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2024년 필자의 물음에 답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장길용 어르신

기타큐슈 시는 1963년 고쿠라(小倉), 모지(門司), 야하타(八幡), 도바타(戸畑), 와카마쓰(若松) 다섯 개 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겨났다. 그중 고쿠라 시는 원폭 투하 후보로 처음부터 결정되었으며, 당시 기상 상황이 달랐더라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대신하여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원폭의 대상이 되었을 지역이었다. 나아가 1945년 8월 19일의 3차 원폭 투하 대상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나 8월 15일에 일본제국이 항복하면서 투하가 취소되는 등 말 그대로 구사일생한 도시이다.

고쿠라 시가 집요하게 원자폭탄의 목표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고쿠라 시는 지쿠호 탄전(筑豊炭田)이라 명명된 광대한 석탄 산지를 근처에 두고 있었는데, 이곳은 1870년대부터 약 100년 동안 8억 톤에 달하는 석탄을 생산할 정도로 일본 굴지의 석탄 산지 중 하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쿠라 시는 야하타 제철소(八幡製鐵所)를 비롯한 각종 중공업 단지뿐만 아니라 서일본 최대급 무기공장이었던 일본 육군 조병창까지 들어서는 등 일본제국의 침략 전쟁 수행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 것이다.

그에 따른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고쿠라 시를 비롯하여 규슈 북부 지역엔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끌려와 일을 해야 했고, 야하타 제철소의 경우 4천여 명이나 되는 조선인이 동원되었다. 2024년 9월 12일, 빗길을 헤치고 찾아온 장길용 어르신(1928년생)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1944년 4월에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어르신께선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 좀 팔려고 이리(현 전북 익산시) 들어왔더니...
이리 역전앞에서 사람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러는거여. 어디 갔다 오느냐고.”

이어지는 말은 텅텅한 어르신의 어조와는 달리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선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다.

“옛 팔고 (집에) 돌아오니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장례라는데 (내일) 9시까지 이리 역전으로 집결하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례도 못 치르고 이리 역으로 가니) 한 320명 되는데...그게 거기서 여수로 기차타고 가가지고는...(중략)... 동네서? 동네선 나 혼자여. 나 혼자 끌려가...”

16살의 어린 나이에 부친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마저도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었다. 이리에서 여수로, 여수에서 시모노세키로,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 다시 고쿠라의 야하타 제철소로. 일본에서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하는 어르신의 어조는 이전과 달리 약간 흥분한 기색이었다.

“아침부터 2개조(이교대)를 가서...센반(선반)을 돌려서 차축을 뽑아냈지. 그리고 그걸 두 돈(2톤)짜리 기증기. 기증기로 옮기고 그랬어요. (중략) 우리는 도바다에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 옆에 (서양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화물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그랬어요. 공장이 넓으니까. 공장이 막 영등포, 구로동만하고... 상당히 커요. 기차로 다녀야 해요.”

당시 근로 환경, 기숙사를 비롯한 주거 환경 및 식생활, 출퇴근하며 보았던 서양인 포로들과 어느 사이인가 시작된 미군의 공습 등, 장길용 어르신은 필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으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일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행된 구타, 월로 만들었는지도 모를 조악한 밥, 숙소 주변의 산으로 가는 등산 외엔 없다시피 한 여가생활. 이에 급여를 비롯한 금전과 관련하여 여쭙었더니 어르신의 답변은 짧고 간결했다.

“일본가서 돈 번 거? 돈도, 월급도 못받았어요.”

어느새 다시 덤덤한 어조로 어르신은 다시 그 말투와 어울리지 않는 참혹한 내용을 이어갔다. 미군의 공습을 피해 대피했다가 공습이 끝나자마자 일터로 복귀해야 했던 일, 옆 지구의 사택과 시설에 폭탄이 떨어져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일 등등. 일본에서 일하면서 주변에 친했던 사람은 없으셨냐는 질문에는 일이 너무 힘든 나머지 목을 매어 자살한 사람을 세 사람 봤다는 말과 함께 어르신은 그저 다 잊어버렸다고만 하셨다. 그런 어르신의 술회에는 당시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광복을 맞이해 귀국하는 과정마저도 바다에 깔린 기뢰를 피하려 이름 모를 섬에 일주일간 정박하거나 다른 배가 기뢰에 터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등 순탄치 않았지만, 마침내 장길용 어르신은 1945년 10월에 부산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가 그렇게 살아서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향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것도 모자라 그 유골마저 가족들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장길용 어르신이 끌려왔던 고쿠라 시를 비롯한 규슈 북부는 그러한 희생자들이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이다.



고쿠라 교회

야하타 제철소와 장길용 어르신이 지냈던 도바타 기숙사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소속 고쿠라 교회. 1960년에 최창화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래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을 안치한 영생원을 건립하는 등 이곳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지 시민들이 활동하는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2024년 7월 29일에 최창화 목사님의 뒤를 이어 고쿠라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주문홍 목사님을 방문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영생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을 때 주문홍 목사님은 영생원 건립을 가능케 했던, 1968년 김희로 사건 등 한 당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재일동포 인권 문제가 대두하는) 와중에서 지쿠호 지역의 한 절간이 지반이 침하되 무너져, 이 때 많은 유골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이 조선 사람들의 유골이었다. 특히 탄광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골이었다.’ 이것이 아사히 신문에 조금 나왔어요, 사회면에. 그 기사를 보고 최창화 목사님께서 ‘우리 동포들은, 조선 사람들은 살아서도 차별받고 죽어서도 차별을 받느냐.’ 하고 격분해 가지고 이 유골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서 세운 게 영생원이라고 하는 큰 납골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과 관련하여 그나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있거나 현장이 보존된 것은 일본 각지의 사찰에 보관된 것을 정도였다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음. 그래서 그 유골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각 처에 있는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불교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취지로서 납골당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동포의 손으로서 유해 봉양을 하고 싶다. 해서 책임지고 또 신원이 밝혀지는 사람은 우리가 돌려보내겠다.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인수받은 유골이 백...에, 백오십? 백오십칠 기가 되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원에 157기의 그, 유골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문홍 목사

그 157기 중 유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낸 72기를 제외하고 현재 영생원에는 85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이 모셔져 있다. 주 목사님은 남은 유골들도 하루라도 빨리 유족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내고자 한다면서 뜻을 같이하는 일본 현지 시민운동가분들이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 한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이어서 영생원 건립과 유골 봉환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에 관하여 솔회 하면서, 영생원을 비롯하여 여러 민간, 종교 시설에서 아직 수습하지 못한 무연고 유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쿠호 탄전이 우리 동포들이 한 15만 명이 거기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리고 각 탄광에 중소기업 탄광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낙반 사고라든지, 폭발 가스가 폭발해가지 고 일본 사람도 많이 죽었지마는 조선 사람들은 더 위험한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탄광도 그런 희생자가 생기면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고를 적게 신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배가 부르면 인간이 탄생’을 하니 늘 굶주리게 해야 헛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굶겼던 이야기나 조선인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시켜 동포끼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처참한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 주문홍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며 무연고 유골과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휴가(日向)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집안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 일각의 빈터에 거기다가 뿔니까 수 용소라고 할까, 내무반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밤중에 시체를 들고 거기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 고 ‘보다야마’라고 그 탄광에서 석탄이 아닌 돌맹이가 나오면은 그걸 따로 버리는데, 그 ‘보다야마’ 를 거기 비석 소굴처럼 해놓고 누가 죽었는지 비석을 놓는 거죠. 근데 3~4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점점 그 무덤 비석이 늘어난 거죠. 그게 ‘휴가 묘지’라고 유명합 니다. 그게 다 무연고 유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탄광, 탄광이 20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근방에 다 그런 게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무연고 유골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시민 운동 및 교육 활동으로 주제가 옮겨가자 주문홍 목사님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 다면서도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지속되면서 과거사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신문의 판매 부수가 떨어지니 예 전처럼 언론도 그렇게 시원하게 기사를 못 쓴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재야에서 시민운동가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걸 받아쓰는 정도는 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을 막론하고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어 일본 우 익들이 과거사 문제는 청산이 됐다며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단에서는 장길용 어르신과 주문홍 목사님 외에도 2024년 총 22건의 구술채록을 하였으며, 피해자 본인이 나 유족 그리고 시민운동가 등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술채록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강제동 원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령과 추모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연구 등의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함께하는 작은 기적
당신의 손길이
희망이 됩니다



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부 사업

- ♥ 우리 재단은 운영경비 등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전액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 ♥ 우리 재단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해 주신 기부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부 참여 방법

- ♥ 기부문의를 하신 후 홈페이지에 있는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 작성하신 지정기탁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FAX 02-721-1883 또는 이메일 lgb1461@fomo.or.kr** 로 송부해 주십시오.
- ♥ 우리 재단은 보다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 및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뜻하게
다시 태어난 역사관으로
전시관람 오세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25년 4월 22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설명패널 전면 리뉴얼을 마치고 5월부터 더 산뜻해진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변경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패널

이번 리뉴얼에서 역사관은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콘셉트로 인한 회색 톤의 어두운 벽면과 유물 보존을 위한 낮은 조도를 보완하여 관람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패널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50%가량 키워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또 색선별로 패널 배경색을 달리하여 모두 5가지 배경색을 적용함으로써 회색 일변도의 상설전시실을 산뜻한 분위기로 바꿔 어두운 연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 내용도 보강하여 국문 패널의 경우 오탈자뿐 아니라 띄어쓰기도 한글맞춤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고, 긴 기관명이나 법령은 단어별 띄어쓰기를 통해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광복 80주년 \times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10주년

2025.
8.12.(화) —
10.31.(금)



당신의 한 걸음이 지구를 바꿔요~ 포모플로깅

플로깅이란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활동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역사관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역사관 주변과 대연동 일대를 정화하는 플로깅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33명, 오후 17명의 플로깅 참여자, 그리고 14명의 운영요원 등 총

64명이 함께했으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출발해 용호공원까지 약 3km를 함께 걸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걸음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의 환경을 돌보는 이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라 좋았고 운영 직원이 길안내를 잘 해줘서 편하게 플로깅 했습니다. 우리동네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면서 그동안 놓친 주변을 둘러봐서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자주 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길가나 공원 곳곳에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특히 담배꽂초, 일회용 컵, 플라스틱 포장지 등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주말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부산 시내를 이리저리 돌며 플로깅한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플로깅하다 길 건너기 전, 부산투어버스에 타던 외국인들이 손을 들어 인사하는 걸 보면서, '내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서 격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플로깅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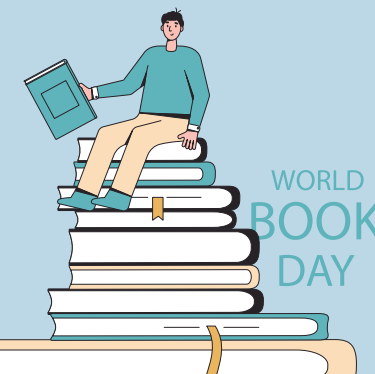
포모플로깅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찾아가는
즐거움, 어디든
내가 찾아간다!

안녕!! 올해 역사관을 찾아오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
이번에는 내가 찾아가기로 했어!!
먼저 5~6월에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7월부터 정식운영을 통해
더 많은 곳을 찾아가 보려고 해~
시범운영에는 14개 학교가 신청해서 총 9개 학교가 선정됐어!!
5~6월 9개 학교만 운영되는 것이 너무 아쉬워~ 7월부터는 내가 더 많이 뛰어다녀서
친구들을 만나러 갈 테니깐 기대해~! 친구들의 많은 관심 부탁할게!!

4월 23일은 무슨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란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제정함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7층 어린이도서관 '다독다독'에서 '포모의 아나바다 책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자원순환과 독서 장려를 위해 각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를 기증받고, 다독다독에 비치했던 도서를 무료로 배부하는 행사로 총 11명이 41권을 기증하였고 29명에게 113권의 도서를 무상 배포하였다.

문채원 (5세)

새책을 가지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역사관이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또 오고싶어요.



김민준 (강동초3학년)

엄마의 권유로 어릴 때 보던 책
을 기부하게되었어요. 이제는
안 읽는 책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김주원 (강동초1학년)

오빠와 어릴 때 읽던 책을
기부했고,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역사관에
오고 싶어요.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나만의 군인동원 전시실' 교구 증정



5월 18일은 세계박물관의 날(International Museum Day)이다. 세계박물관의 날은 1946년에 설립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1977년에 제정한 기념일이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는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 (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 Communities)'를 주제로 박물관·미술관의 문턱을 낮춰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

사관은 일제강제동원의 유형 중 군인동원을 주제로 본인이 직접 전시실을 구성하는 '나만의 군인동원 전시실'교구를 증정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의 학예사들은 어떻게 전시를 기획하는지, 유물은 왜 중요한지, 학예사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2025년 5월 2일 금요일부터 5월 31일 일요일까지 한달간 역사관 1층 올림의 방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증정하였으며, 총 231명에게 체험 교구를 무상 배포하였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in 역사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2024년 대면 및 비대면 10종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121개 기관, 9,984명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 체험을 진행하였다. 대면 교육으로는 52개 기관 1,625명이, 비대면 교육으로는 69개 기관 8,359명이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하였다.

역사 속으로 풍덩! 배우고 느끼는 시간

역사관에서는 매년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면교육 프로그램은 강의와 교구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며, 강제동원과 관련된 교구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게 구성했다. 역사관을 방문하여 전시 관람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참여해 봄으로써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대면교육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탄생 배경과 문제점 등을 배워본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석고 부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일본군 '위안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변천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배울 수 있다. 태극기 이름표를 직접 제작하며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Program

별 헤는 밤

일제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군인동원, 군무원동원, 노무동원, 성(性)동원]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이며, 각 유형을 모티브로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소망 무드등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출발! 역사관 탐험대

박물관 관련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관 전시실을 탐방하며 박물관과 전시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교육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4가지 대면교육 외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이해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다시 쓰는 방구아저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이해하는 비대면 교육인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학습동기를 제고하는 '굶어, 보자'라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3종도 운영 중이다. 교구재를 전달 받아 비대면으로 강의를 받을수 있도록 운영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 행사

삼일절



3.1운동이 뭔지 알아?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온 민족이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이야~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다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끈질기고 강렬한 독립 투쟁정신을 고취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의 무단통치방법을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어. 나아가 민족 의식과 정신에 새로운 자각과 힘을 주어 교육의 진흥, 신문예 운동·산업운동이 활성화되고 민족 자립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어.

그럼 올해 3.1절은 몇주년 일까??

바로바로 106주년!!

우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나와 함께 하는 포모와 함께 '4(four)'개의 3.1절 퀴즈를 푸는 행사인 포퀴즈를 진행했어!!

작년에도 3.1절 행사에 친구들이 많이 많이 참가해 줬는데 올해도 많은 친구들이 참가해줬어~

다들 고마워~



6월항쟁 체험 부스

기억의 힘,
민주주의를 잇다



6월항쟁(六月抗爭)이란?

1987년 6월,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전개된
대규모 시민 항쟁이야~

민주주의, 거리에서 피어나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기획한 6·10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유월항쟁 당시 전국 곳곳에서 매일 평균 100회 이상의 시위가 동시다발로 벌어졌어.

유월항쟁에 참가한 연인원은 400~500만 명으로 추산되어져. 결국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6·29민중화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직선제 개헌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본격적인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부산시가 '제38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 부산 시민한마당'을 6월 7일 부산진구 송상현광장 다이내믹 부산마당에서 개최하였어.

'다시 만난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체험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개최하였는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도 '기억의 힘, 민주주의를 잇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참가하였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로 홍보도 하였고, 포모 타투스티커 체험 운영, 룰렛·기념품 증정을 하는 코너도 진행하였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기

침묵 속의 외침,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국립대학교 전·현직 총장협의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한 국립대학교 전·현직 총장들



조성환 前 군산대 총장(오른쪽)



역사관 상설전시실을 관람하는 김기탁 前 상주대 총장

전국 국립대학교 전·현직 총장협의회(회장 조성환 前 군산대 총장)는 2025년 5월 17~18일 이틀간 부산 대학교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열고, 5월 18일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하였다.

조성환 전 군산대 총장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하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책이든, 자료든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였다.

홍영숙 회장, 귀중한 자료 5,537점 기증



2025년 6월 19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멀티미디어실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기증 자료인 3,072건 5,537점에 대한 기증식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는 기증자인 홍영숙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회장, 심규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박민석 재단 사무처장, 류승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에서 기증한 자료는 유족회의故김경석 前회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한일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활동하면서 생산하거나 모은 자료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이기도 한故김경석 前회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및 권리 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김 前회장의 부인인 홍영숙 회장은 “김 회장님께서 생전에 활동하셨던 자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관해 왔다”며, “역사관에서 이 자료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심규선 이사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이기도 한 김경석 회장이 직접 소장을 써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낸 과정부터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문제에 뛰어들어 화해와 승소를 이끌어낸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수집 자료를 토대로 학술적 연구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 유물기증으로 그 흔적을 잇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을 너머 기록으로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눈물 젖은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집대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사진·문서·의류·도서 등



문의처

051-629-8615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목소리 포모기자단!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주요사업(전시·행사 등) 취재, 홍보 콘텐츠 제작, 일제강제동원·광복 관련 콘텐츠 제작, 다양한 역사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역사관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인 포모 기자단을 소개한다. 포모기자단은 2025년 한해동안 역사관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역사관 SNS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카드뉴스 분야

김가영님

강제동원 역사와 그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알리는 역사관의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열정과 정신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사 분야

서원덕님

기념할 만 한 포모기자단 1기에 선정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좋은 주제와 홍보로 역사 알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사 분야

오다슬님

과거를 기억하고, 진실을 전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오는 포모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취재기사 분야

정은서님

포모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역사관의 유물과 여러 활동들을 기사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기사를 통해 역사관에 더 많은 관람객이 오셔서 좋은 전시를 관람하고 가시길 희망합니다.



역사관 온라인 홍보채널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포모기자단!
고마워요



‘인도네시아 암바라와’ 강제동원 그 속에서 살아갔던 이들 조선인 포로감시원과 일본군 ‘위안부’



A story cover 김가영

암바라와는 인도네시아를 350여년간 식민 지배한 네덜란드 요새(성)가 있던 곳으로, 1942년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제는 암바라와 성을 네덜란드를 비롯한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사용했다. 조선인들은 포로감시원과 일본군 ‘위안부’로 이곳에 강제동원되었다. 고려독립청년당은 인도네시아 암바라와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1944년 12월 29일에 만든 항일 비밀결사 조직이다. 이역관을 중심으로 한 포로감시원 16명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항일투쟁을 위한 조직구성과 활동을 도모하였다.

“단군성조의 피를 이어 받은 3천만 고려민족은 아시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주권을 침탈당하여 혈투의 노예로서 10여년을 경과하였다. 우리 고려독립청년당은 중국 미국을 비롯한 각지에서의 조국광복 단체와 노선을 같이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 투쟁하다가 쓰러진 수많은 순국선열과 국가적 애국지사들의 뒤를 이어 3천만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연 일본군에서 이탈하고 민족해방의 선봉이 되어 일본과 결사 항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고려독립청년당 결당 선언」-

암바라와의 의거는 1945년 1월 4~6일, 3일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암바라와 일대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이던 민영학, 손상섭, 노병한 3의사(義士)가 갑작스런 전속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일본군 십여 명을 죽인 뒤 모두 자결한 항일 의거이다. 고려독립청년당의 다른 당원들은 5월 19일과 24일 일제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해방이후 9월 4일에야 석방됐다.

암바라와엔 아직 일본군 위안소 건물이 남아있다. 조선인 소녀들은 1942년 8월 부산을 출발한 일본 선박에 오른 뒤 인도네시아에 일본군 ‘위안부’로 배속되었다. 종전 후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진 암바라와 조선인 위안부 6~7명 중,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2004년 숨질 때까지 육성 증언을 남긴 정서운 할머니 뿐이다. 그 덕분에 암바라와 위안소가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 저녁에 장교 한 놈 오더라고. 술을 잔뜩 쳐먹고 오는기라. 벌벌 떨릴 거 아이라.(중략) 그래 갖고 이제 강간을 당한기지. 막 발악을 하고 그러니까 아편을 찔러 넣는기라. 그만 중독이 돼버린 거라.”

“목숨만 부지하고 살자, 목숨만 살면 내 몸을 빼앗겨도 내 마음만은 안뺏긴다. 그런 정신으로 내가 살았지.”

“조국이 힘이 없어 끌려간 것인데, 부끄러우려면 우리를 끌고 간 일본이, 그리고 조국이 부끄러워야지.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 정서운 할머니 육성 증언 중 -

‘평화 기원의 탑’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 건립했다. 양국이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역사를 극복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2,800제곱미터 규모에 ‘한국-인도네시아 평화공원’을 건설하고 그 안에 탑을 세웠다.

한국 정부가 건설비를 지원했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했다.

시간을 흘렸지만 상처는 그대로다.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5 새로운 전시해설사의 시작부터 활동까지

전시해설사의 여정



전시해설사 교육

전시해설사는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해설(상설전시, 기획전시) 및 관람 안내 등을 한다. 2025년 2월에 전시해설사 모집을 진행하여 3월에 오리엔테이션, 전시해설 동선 및 기법교육,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보수교육을 통해 외부 강사 및 현직 전시해설사 선생님을 통한 전시해설 기법 교육, 시범 교육을 실시하였다.



4월 5일, 8명에 대해 전시해설사 임명식 및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전시해설사 보수교육에는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이원범 부이사장이 '강제동원 판결과 제3자 변제 그리고 재단', '천황제 제국주의의 등장과 변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역사관 전시해설사는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관람객들에게 멋진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시의 이야기꾼,

전시해설사들의 속마음을 엿보다



Mini Interview 2025년 활동종료 전시해설사

전시해설사의 걸음을 마치며...

전시의 이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전시해설사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겪은 이야기를 진솔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전시해설사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해설사 박도연

2023.05.01.~
2025.06.3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전시해설사로 활동한 시간은 제게 단순한 해설을 넘어, 역사와 사람을 잇는 깊은 사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제동원이라는 아픈 역사를 전시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름 없는 이들의 삶과 목소리를 관람객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했던 매 순간이 매우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시해설사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역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도록 돕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한 초등학생이 관람을 마친 뒤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그 한마디는 이 활동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고, 저 또한 매 회차의 해설을 더욱 진심으로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람객마다 반응은 달랐지만, 눈빛과 질문 속에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질문 앞에서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역사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아울러 자료 조사, 용어 해설, 전시 흐름 구성 등의 과정은 저에게 실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설명의 방식, 전달하는 언어, 관람객의 반응을 매 순간 세심하게 관찰하며, 역사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시해설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제 안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활동한 동료 전시해설사 분들, 늘 친절히 지원해주신 역사관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교육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Mini Interview 2025년 활동종료 전시해설사

전시해설사 손희정

2023.05.01.~
2025.06.30.

"안녕하십니까.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도슨트 손희정입니다."

늘 이렇게 2년간 인사를 드리고 해설을 시작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 동네방네 소문을 내던 일이 었고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역사관을 떠나게 되니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 수습 기간에는 대본을 외우고, 역사관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길도 자주 잃곤 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역사관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의 전시해설사 생활은 제게 큰 성장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가 전시해설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해설을 해보면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최근 교육실습을 다녀오면서 전시해설사로서의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2년간 전시해설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올해 3.1절 행사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람객들이 역사관을 찾았고, 그만큼 많은 해설을 하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끝나고 돌아보니 제 전시해설사 생활 중 가장 특별하고도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답사를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답사를 갔을 당시 너무 더웠던 게 기억에 크게 남았고, 전시해설사 선생님들과 함께 대구에서 많은 유적지와, 유물들을 보고 올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역사관에 올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챙겨주신 담당 선생님들,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었던 전시해설사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더욱 소중한 추억을 안고 역사관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 뜻깊은 경험을 하게 해 준 역사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실텐데도 요리조리 잘 챙겨주신 우리 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 곳에서의 좋은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해설사 김선아

2023.05.01.~
2025.06.30.

2023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2025년 6월까지 활동을 마치고 이제 역사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사관 활동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처음 시작한 대외활동인데 벌써 3학년이 되어 졸업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네요. 첫 대외활동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면접 때도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관객분들에게 해설하는 게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전시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다른 대외활동도 많이 했지만 역사관에서 가장 오랜 시간 활동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전시해설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실감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해설을 할 때마다 다양한 관람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해설 내용에 분노하고, 슬퍼하시는 분이나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더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솔로건처럼 저도 전시해설사로서 배웠던 내용들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시해설사 선생님들도 많으시니 해설 신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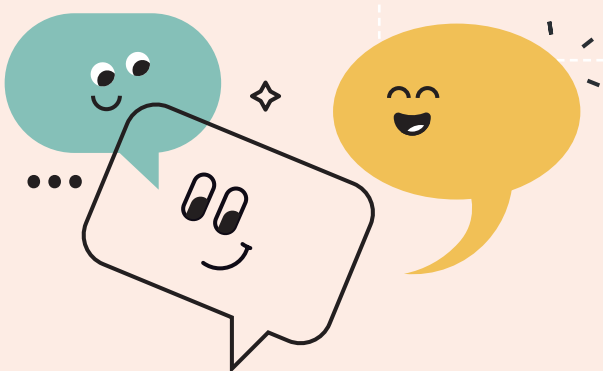
전시해설사 김윤희

2024.07.01.~
2025.06.30.

일 년간의 전시해설사 활동을 되돌아보면 이 활동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낍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하나 생각하며 막막하기만 했던 때에서 성장했고, 일제강제동원에 대해 잘 모르던 때에서 성장했습니다. 전시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오신 관람객 부부께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 내용과 유물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온 보람이 있다고 하셔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뿌듯함을 원동력으로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전시해설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Mini Interview 2025년 신규 전시해설사

전시해설사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서툴지만 낯선 전시관에서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설렜을 전시해설사!
각자의 이유로 모였지만, 같은 마음으로 역사를 마주한 그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새로운
전시해설사에게
행운을
빌어줘~



전시해설사 김민정



저는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버마 철도 특별전'을 관람하기 위해 역사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스스로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자만했지만, 전시를 통해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접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의 무지함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삼아 강제동원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나아가 이 중요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전시해설사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해가면서 역사관을 찾아 주시는 관람객분들께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해설사 문창순



평소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다양한 영상도 찾아보며 스스로 공부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은 아픈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관심이 이어져 자연스럽게 역사관 전시해설사 활동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겪은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전시해설사가 되고 싶습니다. 역사 속 목소리를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시해설사 박혜송



학과 친구의 추천으로 용기를 내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직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관람객 분들이 제 설명에 집중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좋은 해설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역사관을 안내하는 이 시간이 설레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전시해설사 오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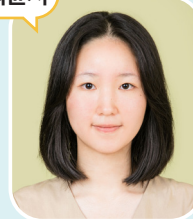
일신(日新) 우(又) 일신(日新)하여 방문객에게 일목요연하게 일제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는 자세를 견지해 나겠습니다.
일상(日像)에 의해 형성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알리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일상(日常)을 고양시키고 보다 성숙된 모습의 역사의 장(場)과 관(觀)의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전시해설사 이희재



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일제강제동원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전시해설사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진심을 담은 해설로 관람객의 마음에 깊이 남는 전시해설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시해설사 최윤서



전시해설사에 대한 동경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할수록, 책임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내어 주신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도록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역사를 전달하는 이 일의 무게를 느끼며,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으려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워가며, 더욱 신뢰받는 전시해설사가 되겠습니다.

전시해설사 최임경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관에서 직접 해설하는 건 아직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만의 스타일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며,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전시해설사 황화모



지인의 권유로 노후의 여유시간을 자원봉사로 적으나마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관의 기록을 더 암기하고 공부하여 전시해설사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일제강제동원 이야기

옛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겪었던 슬픈 이야기

W E B T O O N



일제강제동원 도서 소개



오키나와 전쟁터에 끌려 간 태오

일제 강제동원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 아욕이 불러일으킨 우리 민족의 커다란 비극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이해하고, 잊혀가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군부'가 뭐야?

너는 어쩌다 오키나와까지 와서 포로가 되었니?

오키나와 지하벙커에 걸린 사진 한 장.

맨 뒷줄 구석에 서 있던 소년을 잊을 수 없었다. 태평양 전쟁 한복판 오키나와에서 진지용 땅굴을 파고, 비행장을 건설하고, 부상병을 옮기고, 똥오줌을 치우고, 부대의 온갖 잡일을 하던 군부(軍夫). 그중에는 열네 살 어린 소년도 있었다. 전쟁은 사람들을 참혹한 상황에 빠뜨린다.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던 태오. 본인의 의사나 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납치되어 전쟁터 한복판에 내던져진다. 전쟁 막바지에 인력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일제가 어떻게 강제로 징용을 했는지, 징용당한 어린 소년이 처한 처참한 상황과 극한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켜보게 한다.

작가 소개

남경희 작가는 유학 중 일문학을 전공하고 귀국 후 대학 강단에서 활동했다. 퇴직 후 동화 쓰기에 전념하여 2021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동화 부문 《내 이름은 구름이》로 등단하였다. 《바다를 건너온 피아노》로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자로 선정됐고, 《아까시나무와 꿀벌 봉봉이》로 2024년 국립생태원 공모전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번역 그림책으로 《고릴라 아저씨네 빵집》이 있고, 작품집 《백정의 아들, 포와에 가다》는 2024년 문학나눔도서로 선정되었다. 《오키나와 소년 군부 태오》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작품이다.



필명 남경희 직업 동화작가

광복 80주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10주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대면 교육 프로그램

별 헤는 밤★

일제강제동원 4가지 유형에 대해
학습하고 무드등 만들기

교육대상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11세 이상)
교육시간 45분 내외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와 독립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태극기 네임태그 만들기

교육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12~16세)
교육시간 60분 내외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소녀상 석고부조를 만들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아보기

교육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12~16세)
교육시간 100분 내외

출발! 역사관 탐험대★

박물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관 견학하기

교육대상 청소년(14~19세)
교육시간 90분 내외

포모와 지옥섬 이야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활동지 체험을 통해
강제동원 및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교육대상 어린이 체험관 이용객(5~7세)
교육시간 40분 내외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다시 쓰는 방구아저씨

동화 '방구 아저씨'를 통해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교육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11~16세)
교육시간 45분 내외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소녀상 종이인형을 만들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알아보기

교육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11~16세)
교육시간 45분 내외

글어, 보자

애니메이션 감상 및 스크래치보드를 통해
노무동원 알아보기

교육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8~16세)
교육시간 40분 내외

역사관 미리보기

강제동원역사길잡이(교재)를 활용해
강제동원 역사를 배우고 퀴즈풀기

교육대상 청소년(14~19세)
교육시간 40분 내외

모바일 체험활동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전시 체험활동지 풀기

교육대상 관람객(10세 이상)
교육시간 40분 내외

※ 화·금: 학교 및 단체, 토: 개인 접수

문의 | 전시교육팀 TEL. 051-629-8625 E-mail. taylor@fomo.or.kr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과 실천의 여정, 2025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2025년 하반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광복 80주년과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억과 추모, 성찰과 참여가 어우러진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는 국외 추도순례를 비롯해,
서울, 부산, 강원 춘천에서 열리는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국외추도순례

7.08.~7.14.

장소: 일본 홋카이도, 니가타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광복 80주년 및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귀환'

8.11. - 10.31.

장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광복 80주년 및 개관 10주년 기념 '다시 찾은 빛' 부스 운영

8.15-8.17.

장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포토부스 운영'

9.2. - 12.14.

장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9.29

장소: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추모공원(부산시 남구)
서울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서울시 중구)
강원 춘천시 평생학습관 5층
다목적강당(강원도 춘천시)

2025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9 773091 773009
ISSN 3091-7735